

LG화학, 3Q 영업이익 31.8% 급감

매출액 1조8498억원에 영업이익 921억원 ... 순이익도 47.3% 줄어

LG화학은 2005년 3/4분기 매출액 1조8498억원, 영업이익 921억원, 경상이익 1061억원, 순이익 841억원의 영업실적을 올렸다고 10월26일 발표했다.

매출은 전년동기대비 0.6% 줄어드는데 불과했으나 영업이익은 31.8% 줄었고 경상이익은 52.1%, 순이익은 47.3% 감소했다.

2/4분기와 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3.0%, 7.6% 증가했으나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18.5%, 4.0% 감소했다.

국내 및 해외 자회사 영업실적을 포함한 연결기준으로는 3/4분기에 매출 2조9109억원, 영업이익 2387억원, 경상이익 1964억원, 순이익 841억원을 기록했다.

연결기준 영업실적은 2/4분기에 비해 매출은 9.6%, 영업이익 33.6%, 경상이익 18.7% 늘었고 순이익은 4.0% 감소했다.

LG화학은 2/4분기에 비해 석유화학제품 판매가격 상승, 발코니 창호 및 자동차용 원단 등 고부가제품 매출 증가 등 개선요인이 발생했으나 원재료가 상승, 중국제품과의 경쟁, 전지사업의 손실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가 소폭에 그쳤다고 밝혔다.

LG화학은 4/4분기에 고부가 사업구조 전환 및 전지사업 정상화 등에 힘입어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LG화학은 LG대산유화 합병과 관련해 향후 3년간 3000억원 이상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수직계열화를 통한 석유화학 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2005/10/27>